

텅 빈 도심에 새바람 몰고 온 '열린 미술관'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2 일본 가나자와 (下)
'21세기 미술관'

유리로 된 외벽 안과 밖 경계 없어
제임스 터렐 등 거장들 작품 전시
미술관 체험 초등 4년 필수 과목
개관 10년...경제 효과 328억엔
(약 3500억원)



21세기미술관은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120여장의 유리 외벽과 동서남북 4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한 '유리 아트 서클' 형태로 만들어졌다.

가나자와 = 글·사진 김경민 기자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가나자와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시민예술촌'과 '창작의 숲'이 버려질 뻔했던 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 곳이라면 21세기 미술관은 새로운 문화 창조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21세기미술관은 가나자와성과 일본 3대 정원인 겐로쿠엔(兼六園), 시청 옆에 위치해 있었다. 미술관 건물 주변 잔디밭 광장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나무, 벤치가 놓인 공원이 잘 꾸며져 있었다.

미술관 외형은 '아트 서클' 형태의 둥근 원형 건물로, 외벽이 콘크리트 대신에 120여장의 통유리로 돼 있어 인상적이었다. 하나 특이한 점은 건물 앞뒤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출입구 4개가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어 어디에서나 출입이 가능하다. 미술관이 도시 중심부에 있고, 3개의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통유리로 된 외벽으로 인해 미술관과 밖의 경계를 없애면서 미술관의 높은 벽을 허문 것도 특징이다.

지난 2004년 10월 문을 연 21세기미술관은 가나자와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자와에서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시카와현(石川縣) 청사와 국립가나자와대학, 초·중학교가 일제히 교외로 이전하면서 극심한 공동화에 직면했다. 이때부터 시 공무원과 대학, 문화·예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람들이 다시 모일 공간'을 만들자는 쪽으로 여론이 수렴됐고, 전문가들은 이미 가나자와에서 활성화된 전통공예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예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미술관 오차이 히로아키 공보실장은 "200억엔이 투입된 21세기미술관은 '새로운 문화 창조'와 '새로운 지역진흥의 창출'이 목적"이라며 "현대미술을 통해 가나자와의 전통공예가 자극을 받아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바탕에 있었다"고 말했다.

설계는 지난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SANNA'사의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료에가 맡았다. 이들의 출세작이기도 하다.

두 건축가는 지역사회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누구나, 언



미이클 린 작 '사람들의 갤러리'



레안드로 에를리치 작 '수영장'



통유리로 만들어진 미술관 외벽.

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만남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미술관을 설계했다. '공원 같은 미술관'이 컨셉이었다. 천장의 자연광과 빛의 뜰, 야간 개관과 뮤지엄 샵, 레스토랑 등은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다.

미술관은 매년 가나자와 인구(47만)의 3배가 넘는 150만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21세기 미술관이 현재까지 328억엔의 경제과급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술관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류존과 1년에 4~6차례 기획전시와 상설전시가 열리는 전람회 존으로 구성됐다. 교류존은 시민갤러리, 키즈 스튜디오, 탁아실, 디자인 갤러리, 카페 및 레스토랑, 아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는데, 미술관이 문을 닫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21세기미술관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미술관의 일부와도 같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때문이다. 미술관 외부 공원에는 튜브형태의 12개 관이 페어 형태로 연결된 플로리안 클라르의 'Klangfeld Nr.3 fur Alina', 보는 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색의 풍경이 만들어지는 올리푸스 엘리아슨의 'Colour activity house' 등 3점이 놓여 있다. 내부에는 제임스 터렐, 에니시 카푸어, 안파브로, 레안드로 에를리치 등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7점이 장식돼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작품은 미술관의 아이코나 다름없다.

미술관은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 크루즈'는 문화예술에 대한 가나자와와 21세기미술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필수 교과목이기도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과 미술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된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현재 ▲세계의 지금과 함께 하는 미술관 ▲도시에 살며 시민과 가꾸는 참가교류형 미술관 ▲지역전통을 미래에 전하고 세계를 향해 열린 미술관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 등 4가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21세기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22, 23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kki@kwangju.co.kr

※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가나자와 시청 문화정책과장 도기시 유타카 씨

“지역 전통공예에 현대예술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활력 원천”

“문화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날 가나자와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에서 도시의 미래를 찾는 가나자와는 연간 700만~80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가나자와 시청 도기시 유타카 문화정책과장은 “문화·예술은 돈을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수단이나 외지인을 불러들여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목표”라며 “단, 문화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나자와는 1990년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년이 흐른 지금 문화는 도시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예도 시대 때부터 도시의 핵심이 됐던 전통공예를 보존·발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산업을 추진했다.

도기시 유타카 과장은 “문학, 어린이 문화산업, 공예작가 지원,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투자는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가나자와의 투자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함께하고 있다.

그는 “시청은 큰 그림을 그릴뿐 운영은 시민과 전문 단체들에서 맡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신간센이 개통하면 연간 방문객이 5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